

광주·전남 국회의원 紙上 의정보고

기축(己丑)년이 열렸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 전망과 미디어법 등 쟁쟁법안에 대한 여야의 강경 대처, 용산 화재 참사까지, 첫 단추를 꿰는 새해 벽두 설레는 꿈이 크지만 고난과 역경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내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기축년 설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국가적 위기의 극복 대안과 지역발전 계획, 새해 의정 설계 등을 들어봤다.

“지역 현안 실현에 온 힘...경제 꼭 살리겠다”

‘이용후생의 정치’ 앞장 서 실천

박주선 (민주, 광주 동구)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의 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9년은 10년 전 IMF보다 더 어려운 국가적 위기와 고난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역경 2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막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후생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하겠다.

서민에 도움주는 입법 활동 주력

조영택 (민주, 광주 서구갑)



MB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방지할 경우 국민과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도할 ‘언론탁방’ 강행 통과를 저지하는데 진력하겠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당의 합의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 한해에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자만을 위한 정책 막을 것

김영진 (민주, 광주 서구을)



지난 한 해는 어렵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MB악법’으로 대표되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지난 연말 연시를 반납하고 몸을 던졌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서민을

특공대로 진압해 죽음으로 내 몸 용산참사를 보듯 이명박 정부의 공안 정국화를 위한 날치기 야욕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 있다.

이의 저지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 교육 발전과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D 특구 등 현안사업 조속 실현

강운태 (무소속, 광주 남구)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자 7개월여가 됐다. 그동안 광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인 되고자 심 없이 뛰었다.

다행히 지난해 시민·사회단체(270여 단체)가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고, 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들을 가져왔으며,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법활동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호남고속철도가 조기 완공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광주 R&D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의 주요 현안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호남소외정책 반드시 막아낼 터

강기정 (민주, 광주 북구갑)



이명박 정부의 부자를 위한 정책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이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그동안 착실히 쌓아왔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MB악법’을 막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민주당이 진정한 중산층과 서민 정당으로 발전하고, 이명박 정부의 호남소외 정책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강한 야당, 대안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의 기반을 조성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반서민 악법’ 저지에 총력전

김재균 (민주, 광주 북구을)



지난해 의정활동은 반민주적인 ‘MB악법’ 통과 저지, 서민·중산층을 위한 법안 발의,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중심이 됐던 뜻 깊은 한해였다.

올해 기축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저와 민주당이 최일선에 서서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되돌아갈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악법들을 막아낼 것이다.

또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과 본분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의 수호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민들이 행복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다.

유능한 지역 일꾼 발굴 노력

김동철 (민주, 광주 광산갑)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제18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정유사 폭리 문제를 낱알이 파헤쳐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기름값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근시안적 발상을 지적했다. 또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 활동에도 충실, 지난해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매진하겠다.

목포~제주 해저고속철 건설 추진

이용섭 (민주, 광주 광산을)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다. 경제는 10년 전, 민주주의는 20년 전,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독주와 ‘MB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계층·지역간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 서겠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목포~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을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 목포에서 제주를 40분대로 연결해 제주와 2천여개 섬을 가진 전남,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잇는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 광주·전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명박 정부에 햇볕정책 설득

박지원 (민주, 목포)



지난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MB악법’ 저지 투쟁을 벌였고,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 문제에 대한 역주행을 막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절반의 승리’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본격적인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과 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설득하고 압박하겠다. 무엇보다 호남 정치인으로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람냄새 나는 정치로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여수박람회 차질없도록 만전

김성곤 (민주, 여수갑)



우리 앞에 놓은 정치·경제적 환경이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국민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의 반민주적 악법을 저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저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9년, 개인적으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토해양위원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성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총선 때 공약한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광주와 전남이 기후변화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인·여성 정치인 발굴 주력

주승용 (민주, 여수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전남지역 현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외되고 지역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어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올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2010년 지방선거의 압승에 선도적 역할과 필승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가면서 민간의 준비를 하겠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조직 강화와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개설해 기성정치인의 역량 강화와 신인정치인 발굴 및 여성정치인을 양성,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겠다.

서민·중산층 위한 민생정치 펼 것

서갑원 (민주, 순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책을 맡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다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있을 것이다. 냉철하게 돌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새해의 거울로 삼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릴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민주당이 되겠다.

더불어 전남지역 유일의 국회 문방위원으로서 우리지역 현안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개발도시), F1국제자동차대회를 2012년 여수엑스포와 전남의 미래를 여는 문화관광산업 조성에 힘쓰겠다.

지역 숙원사업 차질없이 진행

최인기 (민주, 나주·화순)



지난해는 성과와 보람이 큰 한 해였다. 당 정책위 의장·기축법특위 위원장·당 예결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축년 새 해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특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전남의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혁신도시 조성, 영산강 배길 복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정부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시·군·자치구 통합에 최선의 노력

우윤근 (민주, 광양)



법사위 간사로서 지난해에는 민생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입법이 미흡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기축년에는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점인 여·야의 대결과 정치적 파행은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해 세금 낭비를 막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향상과 망국적인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도(道)를 폐지하고 230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를 60~70개로 통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 균형발전 위기 해쳐나갈 것

김효석 (민주, 담양·곡성·구례)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민주·평화시대의 토대를 허물고 한국 사회를 권위주의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시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광주·전남은 지역균형발전의 썩어 고사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함께 안고 있다.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지역균형발전의 위기’라는 3대 위기에 애로 직면해 있는 것이다.

2009년 의정활동의 초점은 3대 위기 극복에 맞춰질 것이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극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과 서남해안관광개발도시개발(J프로젝트) 등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 과제가 삼을 것이다.

위성 쏘는 나로우주센터 정비

박상천 (민주, 고흥·보성)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경제 위기에 국회 파행까지 겪었다. 당 대표직을 떠난 의원으로서 표현에 나서지는 것은 자제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경제의 불안 요인 중 하나인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해외동포 달러 예금 운동’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와 외교통상위에서 제안해 해외동포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 국회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마추 역할도 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 정치의 새로운 틀이 짜여지도록 하고, 민주당의 발전과 올해 첫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로우주센터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회복·민생안정 법안 신속 처리

유선호 (민주, 장흥·강진·영암)



우리는 지난 한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탄환율의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올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국회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세가 부족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국회의 모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법사위는 이해를 달리하는 여야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

쌀 직불금제도 개선책 마련

김영록 (민주, 해남·완도·진도)



지난해 국회 농림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유가, 비료값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비료값 상승분의 20%만 농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양식어가와 축산농가에는 정책자금 지원, 면세유 카드 수수료 폐기 등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미 FTA 졸속 비준을 막아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어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쌀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쌀 뿐만 아니라 주요 농가소득품목에 대해서도 농가단위 소득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토록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

삶의 질 높이고 취업의 길 열겠다

이윤석 (무소속, 무안·신안)



‘이윤석은 일할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회에 들어온지 어느덧 8개월을 맞았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각종 민생법안들을 발의했으며 특히 무안과 신안의 최대 숙원사업인 환경~해제 도로 4차선 확장과 압해~암태 새천년대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어렵지만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치권에서도 새해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 취업의 길이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가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준비

이낙연 (민주, 함평·영광·장성)



올해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공동회장이로서 위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리는데 진력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학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율을 20%로 조정했다. 농어업용 면세유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했다.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

쌀 직불금제도와 농협법, 수협법을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면서 개정하려고 한다. 2012년 농가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시작하겠다.